



食品工業의 再認識

崔 誠 實

<經博 · 三養食品(株)常任顧問>

계속되는 물가고, 그리고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유해식품(有害食品)·불량식품들 때문에 소비자를 불안에 몰아넣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식품업자는 소비자의 미움의 대상이 되다 못해 고발사태까지 빚고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가 유독 심한것 같다. 『안심 할수 있는 생활물자를 보다 싼 값으로 손에 넣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의 한결 같은 소리라는 점을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고객은 왕이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경영철학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영철학 하에서는 기업의 목적은 물론이지만 사업의 목적 나아가서는 경영의 목적까지도 『고객 및 소비자를 창조』하는데다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산업사회 특히 현대사회를 마케팅(marketing)시대라고 전제하고 산학(産學)협동으로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생활이란 거의 모두가 비지비스(business)와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서비스(service)란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로 바뀌었고, 신용판매(信用販賣)란 인격판매(人格販賣)로 바뀌었다. 여기서 특히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나, 종업원들은 이와같은 시대적인 사명감에 입각해서 새로운 정신 자세로서 임하지 않는다면 기업인으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성공은 고사하고, 역사의 죄인으로서 나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었던 선 이윤(先利潤) 후 서비스(service)를, 선 서비스 후 이윤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재인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식품들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 주식생활의 원동력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식량자원의 역군(役軍)으로서 봉사한다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재인식하고 식품제조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해방 당시

만 해도 우리나라 식품업은 극히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면 다른 어느 업종에 못지 않게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한 예를 75년말 정부 통계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수가 18,877개(이 중에 청과물이 4개, 식품가공제조업이 4,583개이다.)나 된다.

이 중에서 공개된 식품공업기업만도 12개.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대기업만도 약 200개에 달한다. 수출액도 75년에 약 6,000만불, 76년에 약 1억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런 추세는 매년 출잡아 약 40%의 수출신장율을 나타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단적으로 말해서 식품공업이 세계시장을 상대로하여 국제시장에서 세계각국의 식품과 품질면에서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품공업 제품들의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출시장도 다양해서 동남아를 비롯하여 미국·구주·중동·남미 등에까지 확장 되고 있어 세계의 소비자 들을 거의 모두 상대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외형적으로는 매년 40%씩 신장하고 있으나, 원자재, 인건비, 간접비등 계속적인 코스트 인상요인 때문에 수익증가면에서는 뚝 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상의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식품업이란 곧 國民生活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산업이다. 그런데도 자금지원면에서나 또는 세제상으로 정부의 아무런 특전도 없거니와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다.

그 뿐만 아니라 원재료 도입과정에서 보면 도입량을 제한하는등, 일부 당국자의 식품업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경영상의 압박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이 기회에 특별히 당국자에 드리고 싶은 말은, 식품업에 대한 인식은 새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식품정책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즉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늘어만 나는 人口,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은 물론 이지만 국민 건강면에서 볼때도 매우 어려운 때가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식생활의 패턴이 점점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서 밀가루를 제외한 쌀·보리등 곡물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쇠고기등 육류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76년 농수산부가 제시한 양곡소비 분석에 따르면 쌀이 1인당 120.1kg로서 75년의 123.6kg에 비해 2.8%(3.5kg), 보리쌀은 36.3kg에서 34.7kg으로 4.4%(1.6kg)가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밀가루는 4.4kg으로 75년의 4.1%에 비해 7.3%(0.3kg) 늘어났고, 쇠고기는 2.13kg으로 7%, 돼지고기는 2.95kg으로 5.4%등, 전체 육류소비량이 6.75kg으로 6% 늘어났으며, 계란(3.7%) 우유(20.1%) 라면(34.8%)등이 눈에 띄게 늘어 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단백질을 취하려는 경향이 높아졌고 밀가루 값이 다른 곡물에 비하여 싸기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나라 식품공업도 앞으로는 식량과 국민보건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재인식할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